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3호 [루게 제26127호] 주제107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결친 백승의 진로따라 자력부강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며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종 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종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미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전체 인민군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주석단과 주석단특별석에 동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물전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 모리타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쌀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메사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제1부수상, 힐랄 알릴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부비서, 알렌체나 이와노브나 마르비엔코 로씨야변방평의회 의장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제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단장들과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대표단 단장들, 목사, 인사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초대석에는 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2 번 으 로 계 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해외동포추하단, 대표단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군종병예위병대와 종합군악대의 시작례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한 열병부대를 사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

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었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영생불멸의 혁명 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세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연설을 하였다.

력사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서자 조선인민군 군종병예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열병지휘관 김명남 육군상장의 지휘차를 선두로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주체적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과시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총대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해온 중앙보안간부총련소총대, 38경비대총대가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발걸음 드높이 광장에 들어섰다.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근위 제2어뢰정대, 근위 제56추격기병대의 열병총대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혁혁한 무훈을 아로새긴 근거들을 앞세우고 열병광장을 행진해갔다.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중대총대의 뒤를 이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조선인민군의 본태를 보여준 해군사령부 제1기지중대와 항공군중대, 판문점경무대중대, 제4군단아래 포

병부대중대 그리고 조국의 대지우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운 근위 영웅1려단중대와 서해감문건설부대중대가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반제혁명의 최전선에서 숭고한 국제주의와 자랑찬 승리전통을 떨친 해남도전선부대중대와 공군총대,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중대도 긍지높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유창선 육군소장, 김광철 육군소장, 윤학선 육군소장을 위수로 하는 전선군단총대들과 리수경 해군소장, 한일남 항공군소장이 인솔하는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중대에 이어 전략군과 특수작전군의 열병총대들이 위풍당당히 전진하였다.

제91군단, 교사포병군단, 제3군단, 제12군단, 제425기계화보병사단, 제518포병사단중대들도 리근혁 육군소장, 최승광 육군대

좌, 권기훈 육군소장, 윤득수 육군소장, 박종철 육군대좌, 한격림 육군소장을 따라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며 씩씩하게 행진해들어왔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대전을 혁명의 총창, 계급의 총대로 민음직하게 보위해갈 열의를 안고 나아가는 열병총대들마다에 필승의 기상과 용맹이 융솟음쳤다.

철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주체군사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자랑높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김정일인민보안대학총대를 비롯한 각종 군사학교총대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총대들이 용기백배하여 경축의 광장을 활보하였다.

3 면 으 로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주석단앞을 지나는 열병대들에게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병대원들이 리치올리는 우렁찬 함성이 광장에 메아리쳤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하는 길에서 인민군대의 강위력한 억측부대로 믿음직하게 준비된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군위대중대들이 불패의 전투력과 정규화적면모를 과시하였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침범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비행기들이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상징한 《70》이라는 수자대형을 짓고 수도의 상공을 날았다.

철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백승의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천능력을 갖춘 기계화중대들이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명판》의 군약에 맞추어 광장을 누벼나갔다.

리성호 육군대학, 심용택 육군소

장, 권육성 육군소장, 문학명 항공군소장의 지휘자들을 선두로 정연하게 대렬을 지은 탱크, 장갑차중대와 각종 구경의 자행포 및 방사로중대, 로켓중대들이 위풍있게 전진하였다.

강철포신을 추켜들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무식철갑대의 열병대원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더욱 튼튼히 갖추고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영예로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충천한 기세로 광장을 통과하였다.

무진막강한 우리의 군력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열병대요에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행진군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고 비행기들이 광장상공에 삼색연무를 뿌리며 열병식마감을 장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 이어 장엄한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강대하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을 시위하며 공화국기독대렬이 《빛나는 조국》, 《조국찬가》의 노래

선물에 맞추어 물결쳐가고 《경축 9.9》라는 글발이 광장바닥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기발대렬이 수령영생승가가 울려퍼지는 광장으로 들어서자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꽃물결은 더욱 세차게 설레이었다.

수명의 위대성에 나라의 강성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새겨주며 경축의 광장에 태양의 존함들이 정중히 모셔지고 《경축 70》, 《주체》, 《일심단결》 등의 글발들이 펼쳐졌다.

공로자대렬, 군인가족대렬, 농업근로자대렬, 체육인대렬, 소년단대렬을 비롯한 시위대렬들이 《승리와 영광의 70년》, 《주체조선의 탄생》, 《장군님 지켜주신 행복담친집》, 《사회주의대가정》, 《세상에 부럼없어라》, 《사회주의 한길로》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편이여 광장을 지나갔다.

시위참가자들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는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경쾌하고 우아

한 춤물동에 담아 펼쳐놓았다.

《사회주의전진가》, 《자력갱생행진곡》의 노래선물이 울려퍼지고 《불패의 강국이여 앞으로!》, 《경제건설에 총력을!》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들,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2018년 4월전원회의 결정판철대로!》라는 프랑카드를 든 로농계급대렬, 과학자, 교원대렬이 용용히 흘러갔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대고조폭풍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갈 의지로 충만된 청년학생들이 웨치는 《청년강국》, 《결사용위》의 함성은 광장을 진감하고 붉은기총대렬의 박력있는 춤물들은 경축열기를 더해주었다.

시위참가자들은 주체의 붉은기를 억세게 추켜들고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이며 전면적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잘 보여주었다.

조선지도와 《우리 민족끼리》, 《자주, 평화, 친선》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광장에 들어선 시위참가자들이 꽃다발과 통일기를 흔들며 광장을 활보

하였다.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시위대렬들이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끝까지 걸어갈 신심드높이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노래선물에 맞추어 광장을 메워나갔다.

종합군악대가 《김정은장군찬가》를 주악하며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당마크와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속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여 열광적으로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대정치축전으로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아로새겨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열 병 식 및 평 양 시 군 중 시 위 에 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의 연설

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모용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
우리 인민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위업
의 최후승리를 향한 전인민적
총진군을 가속화해나가고있
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창건 일흔돐경축 열병
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성대히
거행하게 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
원회의 위임에 따라 나는 공화국
상권 일흔돐을 맞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우리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축하하여 이 자리에 참석
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 력사는 세기적으로 뒤이어
졌던 우리 나라가 필승불패의 위
역에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송구추오른 거창한 전변과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명도민에 공화국이 주체의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이 구현
된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성세로 강
화발전되고 강국건설의 른른
한 토대가 마련된것은 우리 민족
의 운명계책에서 이룩된 가장 빛
나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력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
한 대변혁을 이룩하며 승승장구하
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

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백옥같은 총정파
의리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
국건설업적을 빛내어나가고있
으며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관철하
는 결사의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
고있습니다.
천만군민이 명도자를 절대적으
로 신뢰하고 받들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제일국력이며 여기에
남들이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
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 있
습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할하려는 적대세
력들의 책동은 악랄하게 감행
되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력
강생의 창조대진으로 국력
강화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
한 귀중한 성과들을 다발적으
로, 번발적으로 창조해가고있

습니다.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통일번
영은 무적의 군력에 의하여 굳건
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받으며
백승의 군사전략술과 영웅적
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최정에혁명강군으로 억세
게 자라나 조국보위, 혁명
보위, 인민보위의 전위적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외부세계의
온갖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중식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단과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진화하였으며 조선
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높이 조선로동당의 명도다
라 사회주의승리의 길로 눈도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세계일에 뚜렷이 표시하게 될것
입니다.
공화국의 총합적국력과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선로동당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때
대한 전략적모션을 제시하였습
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무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
으로 다지며 자력강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경제건설대진
군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가 하겠습
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
을 더욱 튼튼히 갖추고 나라의 안전
과 인민의 창조적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 조국이 부르는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혁명군대의 기진
과 분배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
가야 하였습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자주적통
일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
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
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억센 신념을 간직
한 우리 인민의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공화국의 끝없는 통일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
의 완성을 위하여 총대진해나갈
시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기적변혁을 다제단으로 이룩하시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기를 펼쳐가시는 회세의 천출위인을 우러러 목놓아 찬양하는 환호를 이어나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지, 박광호동지, 리수용동지, 김정태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리용호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최희동지, 박태덕동지, 정경태동지, 조연준동지, 리만건동지, 김봉오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동지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인 리명수동지, 김수길동지, 리영길동지, 노광철동지, 도당위원장들,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부영옥 제일본조선인총련합단 단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 하단 단장,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 연합회대표단 단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대표들, 당중앙위원회,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봉사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해외동포측하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하였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가자》를 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위치가 회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전면적부흥의 새시대가 열리고있는 시기에 공화국창건 70돌을 맞이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민족사적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주체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공화국창건 70돌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

군렬사들, 애국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또한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사회주의조국의 통일번영을 위하여 애국지성을 바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였으며 대회에 참석한 외국의 빛들을 환영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70년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무적막강한 국력, 양양한 전도를 가진 필승불패의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공화국창건이래 훌륭한 승리의 년대들과 조국땅에 펼쳐진 세기적인 전변에는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명도와 우리 인민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령령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오랜 세월 근로대중의 진정한 국가정권을 갈망하던 우리 인민의 숙원을 빛나게 실현한 거대한 역사적사건이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는 자주독립 국가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

식민지예속에서 갖 해방된 인민이 자력으로 건국위업을 이룩한 이 위대한 승리는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후 70성장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한길로 즐거운 자제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천제적인 예지와 불변불휴의 명도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공화국을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시였다.

사소한 로선상학오나 정치적공파도 모르고 곧바로 전진하여온 승리의 역사,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전변을 안아온 천지개벽의 역사,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정권건설의 시대적귀감을 마련하여온 창조적역사이라는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위대성이 있다.

공화국의 역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주체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강화발전되어온 로정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왔다.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관철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신념과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는 공화국이 한치도 흔들림없이 자기 발전의 특장적인 길을 걸어올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었다.

명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자주적대를 세우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없이 전진하여온것은 세계정치사에 류례없는 기적이다.

공화국의 역사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부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강화발전되어온 로정이다.

인민위원을 국가건설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화국정권을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7 면에서 계속

나라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인민이라는 말과 결부되고 인민을 위한 시책들이 엄숙한 나날에도 중단없이 실시되어온 사실은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가장 안정되고 공고한 국가정권으로 위용될치게 되었다.

과관만상의 부잡다단한 70년 행로에서 공화국기에 새겨넣은 민족자주, 인민사랑의 건국리념을 그 어떤 변색도 없이 전지하여온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더없는 긍지이며 영예이다.

공화국의 역사는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온 영웅적투쟁행로이다.

창건된지 2년도 못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독립과 세계평화를 수호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영웅의 나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공화국의 기치이래 우리 인민은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영웅조선의 본태를 과시하였으며 세기를 주름잡는 천리마대고조로 공업화위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난날 락후와 빈궁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우리 조국이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 든든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솟구쳐오른 위대한 전변은 20세기 정치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공화국정권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였으며 전반적국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당의 선군령도를 구현하여 나라와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한것은 또 한차례의 전승과 맞먹는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국가존망이 판가리되는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강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전적지를 열어놓았다.

우리 공화국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있게 투쟁

하여왔으며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일관하게 견지하면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공화국의 행로에 빛나는 기적적 승리들과 이 땅우에 마련된 모든 제부들에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부강조국건설대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여 있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세출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건설하시고 후손만대에 물려 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영원한 태양의 나라이다.

김영남동지는 우리 공화국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필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부흥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필에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서의 혁명적 본태를 고수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오늘과 같이 나라의 존엄

과 국력이 온 세상에 높이 펼쳐진 때는 반만년역사에 일찌기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이 필승의 정치군사력을 갖추고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주체의 강국이라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사상론과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을 일관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지반은 더욱 탄탄같이 다져졌으며 공화국정권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고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으로 철저히 지향됨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자력자강으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활력 있고 절도양양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자력경제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힘이 비상히 강화되는 속에 조국땅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전망이 열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대외같은 도량, 비범한 결단과 명철한 지략에 의하여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이 이루어지고 특출한 정치실풍

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공화국의 위상이 만천하에 빛나게 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의 락월한 사상과 명도가 있고 노도로 솟구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이 있으며 자력으로 다져온 만복의 토대가 있기에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위용 떨치는 오늘이 있고 더욱더 통성번영할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이 있다는것이 공화국이 새겨온 70년 력사의 빛나는 총화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영남동지는 혁명의 전진속도를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승리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며 일심단결을 공고히 다져 우리 국가의 제일국적인 정치사상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경제의 혁명성진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자위적국방력을 배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고귀한 전위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숭고한 공민적리념과 헌신의 뜻과 열정을 다 바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빛나는 조국》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성대히 진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70년 역사를 경축하여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 9월 9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였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주석단판락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리저울라 장대를 진감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존엄으로 빛나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불멸의 위력을 만방에 펼쳐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렸다.

경에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향하여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 도당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폴란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데사 무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겸 내각 제1부수상과 부인, 필리핀 알 필리핀 아랍사회부총당 지역부서, 왈렌피나 이와노브나 마르비엔코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들, 특사, 인사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였다.

또한 부영유 재일동포조선인총합단 단장, 최은복 재중조선인총합회총합단 단장,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 단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해외동포총합단, 대표단 성원들, 해외동포들, 만제민족민주조선 평양지구 대표와 여러 나라 대표단성원들, 주조 의표 및 국제기구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았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람홍색공화국기가 게양되였다.

백두산의 역센 기상을 안고 역사의 폭풍우를 과감히 뚫고 헤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질풍천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멸의 위상을 안고 《빛나는 조국》의 제명이 경기장의 밤하늘에 환연히 빛을 뿌리는 가운데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서장 《애국은 백두산》과 《사회주

의 우리 집》, 《승리의 길》, 《태동하는 시대》, 《통일삼천리》, 《국제친선장》 등의 장으로 구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우리 공화국의 진국과 수호, 기적과 번영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과 당의 명도다라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며 백승의 한길로 승승장구해온 주제조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주제의 건국위업을 완벽하게 실현하시어 이 땅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주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과 춤물들에 담았다.

근로하는 인민이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되어 민주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새 조선의 눈위는 승결과 조국의방진쟁의 위대한 승리, 건설속의 천리마가 나래펼친 당대의 시대상이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졌다.

10면으로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 성대히 진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9 번 에서 계속

한정생 혁명의 불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보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며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와 함께 험난한 산밭들과 파도세찬 바다길로 이어진 위대한 선군장정의 영웅사시적행로를 보여주는 거대한 총돌집이 온 경기장에 파도쳤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로그가 깃들어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활용성같이 지켜가는 최정예혁명장군의 무적필승의

기상과 땅의 온정속에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 인민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화폭들이 편이어 흘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거창한 전년의 역사가 창조되는 내 조국의 비천 현실을 음악과 무용, 제조와 교예, 대규모의 배경대와 현대적인 조명과 무대장치 등의 조화로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역사적인 4.27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외의 새 역사를 써나 가려는 거베의 강렬한 지향이 통일삼 천리로 아름답게 수놓아지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바라는 인류의 열망이 친선의 교향곡이 되어 장내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어 강대하고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무궁토록 번영할 김일성, 김정일조국의 폐일이 있음을 환희로운 예술의 세계로 펼쳐보인 대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종장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로 절정을 이루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혁명적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막판을 베풀어주고 특색있는 제 조와 예술적형상으로 생생한 열정과 신비로움을 안겨준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우리 공화국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미치 는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속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 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발전하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새롭고 독특하게 형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 하시면서 전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 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당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 자기 힘을 믿고 생기와 활력에 넘쳐 혁 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위대한 강국의 위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료전서동지를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9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
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장 료전서동지를 접견하시
였다.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특별
대표인 료전서동지가 인솔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
연락부장 송도동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양진무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리진군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장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료전서동지
를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반갑게 상봉
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신 후 따뜻한 답화
를 나누시였다.

식 상에서 료전서동지는



친선을 끊임없이 강화발전
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한 선택이고 절대
불변의 방침이라고 하시
면서 습근평동지와 이미
합의한대로 고위급래왕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의사
소통을 긴밀히 하여 그 누
가 건드릴수 없는 특수하고
도 견고한 조중관계를 보다
굳건하고 심도있게 발전
시켜나갈 의지를 피력하시
였다.

료전서동지는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주신 중조
친선은 지역정세의 변화와
역사의 풍파를 이겨내고
오늘 두 당 최고령도자들
의 특별한 친분관계에 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
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
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료전서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표단을 최대로
중시하시며 특별하게 환대해주시고 국경
절경축행사일정으로 것처럼 분망하신 속
에서도 친히 접견하여주시는데 대해 감사

를 드리면서 습근평총서기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장건 70돐
을 맞이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
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
총서기동지가 공화국장건 70돐 경축행사
에 료전서동지를 자신의 특별대표로 파견
하고 당 및 정부대표단을 보내준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
다고 하시면서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존경하는 습근평
동지 그리고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가

장 신뢰하는 친선적인 림방에서 온 귀
중한 동지들을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
이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영접하
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하시
면서 우리 인민이 커다란 기쁨과 긍지
속에 맞는 가장 큰 국가명절을 계기로
이루어진 습근평총서기동지의 특별대표
인 료전서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새
로운 정세하에서 날로 훌륭히 강화발전
하는 불변의 조중친선을 다시한번 과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중
두 나라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

초하여 더욱 두터운 관계로 승화되고있
다고 하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추동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림장은 변함이 없
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료전
서동지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의 강
화발전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식없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시
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회주의조선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자랑찬 화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 평양시민들 수십리연도에서 열렬히 환영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한 참가자들이 9일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의 무적마강한 군력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펼친 열병대대가 지나게 될 영광거리로 부어 천리마거리, 영웅거리, 비파거리, 승리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손에손에 공화국기와 꽃다발과 고무풍선 등을 든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를 선두로 열병대원들을 대운 자동차행렬이 평양대극장 앞도로에서 출발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벼나가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승리의 영광을 보무당처럼 행진한 크나큰 영광을 거둔 참가자들은 락양구역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독창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리론, 탁월한 평도로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집세위원들에게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열광의 환호가 되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오랜 세월 근로대중의 진정한 국가정권을 감양하던 인민의 숙원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전변시키시었으며 조선인민군을 혁명의 붉은 총장으로 우리 인민의 창조적투쟁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강력한 전투대로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두 단계의 사회혁명이 빛나게 수행되고 거창한 천리마대교가 일어 나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리상향을 건설할수 있었다.

어머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웅대한 리상과 포부를 간직하시고 불면 불효의 선군혁명명도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하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적인 총동세로 세계적인

기적과 승리를 편이여 이룩해 나가는 오늘날의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초월시킬 광대 불태우신 어머수령님의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속에 마련된 강국의 토대가 얼마나 굳건하며 위대한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대외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자동차행렬이 지나는 영광거리에서 만경대구역 주민들이 흥겨운 춤을 편이여 환영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열전만 리를 헤치며 일제불 태러부시고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굳건히 보위해 온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총대와 38정비대총대를 비롯한 상진총대들의 열병대원들을 극드환경보호성, 도시경영상, 경호지도국, 국가정보외국의 일군들과 총일원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가련한 전희의 나날 먼적의 부대로 명성을 날리며 조선사람의 본래,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기개를 남겼던 평천근위 서울집체제4모방사단총대, 근위 서울유정수제105방사단총대, 근위 제2어뢰정대총대, 근위 제56추적기전대총대를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시기총대의 열병대원들을 향하여 군중들이 꽃다발을 흔들 어 주었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행로에 승리전통만을 아로새겨 온 최정예혁명군대의 열병대원들을 대운 자동차행렬이 천리마거리에 들어서자 환영 열기는 더욱 뜨겁게 말아올랐다.

조국인민의 전적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공화국 창건 일흔흔에 드리는 총정의 선물을 안고 영광의 9월을 맞이한 만수대창작사, 평양로고공장의 기동예술선봉대원들과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 봉화사학교 학생들이 열병대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전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년관총대 연도에서 김총대 전기가관차현합기연소, 평양시 제공장 등의 모듬계급이 일당백의 고함 대덕선봉대총대와 해군 사령부 제1기지총대, 항공군총대, 판문점경무대총대, 제4군단 야배 보병부대총대의 열병대원들을 향하여 《장하타!》, 《우리 인민군대가 제1이다!》라고 외치며 우렁찬 환호를 울리었다.

이제남의 최선군복을 편지적인 전성로병들과 수명감사용위정신, 조국수호정신으로 만장아전 일당백대오에서 청년시열을 빛내인 영예군인, 제대군인들도 인민군장령들에게 뜨겁게 손저 어 주었다.

집세위원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의 만아들군단, 거군군단, 중추군단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제1, 2, 5군단을 비롯한 전선군단의 열병대원들을 대운 자동차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도에서 사상, 보통장구역의 녀병대원들이 펼친 붉은기춤바다는 환영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조국수호전의 갈피마다에 불멸의 영웅신화와 자랑찬 위훈을 아로새기며 천대적인 공격속도와 방어수단을 다 갖춘 정예의 대대로 강화발전된 해군총대와 항공 및 만항공군총대, 정의와 평화수호의 역생 보검으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걸사대로 준비된 자랑스럽고 미더운 전라총대의 열병대원들이 빛나는 군공이 아로새겨진 훈장과 메달들을 앞가슴에 번쩍이며 군중들을 향해 힘있게 손을 흔들었다.

우리 당의 승하에서 일당백의 만능싸울군, 무적의 전투대로로 자라난 특수작전군 인민들의 모습 또한 미더이 미더고 자랑스러웠다.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제1강군으로 키우시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마음과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며 수도시민들은 하나같이 팔팔하고 흥분한 열병대원들에게 꽃다발을 흔들 어 주었다.

제1군단, 고사포병군단,

제3, 12군단의 열병대원들을 대운 자동차행렬에서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속에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지나던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세가 총총하고 승리의 전진기가 우렁차게 울려나왔다.

집세위원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김정일인민보안대학을 비롯한 각종 군사학교의 열병대원들이 시민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뜨거운 현혹의 정을 나누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 위대한 평도자들 높이 모시어 배송을 펼치는 자주적근위병, 자주적인민의 군지와 자부심이 더더욱 높아지는 속에 열병식참가자들을 대운 자동차행렬은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과시하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워 혁명거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통통네거리로 들어섰다.

우리 조국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일떠세우는 데서 한문 단단히 해운 위훈많은 부대, 자랑많은 부대인 근위 영웅1려단총대와 당의 부름이따른 산도 떠올리고 바다도 통째로 메우는 인민군대의 불굴의 정신력을 힘있게 과시한 서해갑문건설부대총대의 열병대원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중성동력운동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마라 일리 마다에서 천주적인 공격, 최대 한의 증상으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대성구역의 근로자들이 뜨거운 인사를 보내었다.

어찌 그들뿐이랴, 앞가슴에 온장을 번쩍이는 군대형님, 누나들에게 겨우겨우 보내는 유치원어린이들,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로의 노래》, 《위대한 내 나라》의 노래선물로 거리로 불었다대는 모란봉구역 개신교급중학교, 대성구역 문덕고급중학교 학생위주애대 성원들...

끝없이 이어지는 연도에서 군중들이 미치는 《경사옹위》, 《일심단결》의 합성은 만경대의 울림을 이어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핵심물간으로 자라나고있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민서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천아들의 가슴마다에 수령감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새겨 주었다.

수도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는 기계화총대들이 지나는 상전거리와 옥류로, 대학거리에서도 퍼져올랐다.

전사공업성, 로동성, 금성정치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평도 아래 높은 기동력과 마력력을 갖춘 인민군대의 용감성과 위훈의 상징인 땅고, 장갑차총대와 자형포 및 방사포총대들, 조국

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전투적사명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있는 로예뜨총대들을 향하여 연해연방 기쁨과 환희의 탄성을 울리었다.

무의침략대오의 유용한 효용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불굴의 공격정신과 강철의 담력, 불멸 주아의 애국헌신으로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펼쳐놓으시고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만만단단 독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의 정을 금치 못하며 열정적으로 꽃다발을 흔들었다.

공화국의 통일번영과 조국수호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미더운 인민군대에 대한 인민의 믿음과 신뢰, 고무를 단아인오 열병대원들을 대운 자동차행렬도 옥류로를 지나 대학거리로 도도히 굽이 쳐갔다.

열병식참가자들에게 대한 평양 시민들의 열광의 환호는 주체조선의 제1국력인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사회주의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자력부강의 길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 가려는 천만군민의 역력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장엄한 화폭이었다.

【조선중앙통신】



